

# “행정 투명성·소통 강화 성과”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100일

전남과 반도체산업 공동 육성  
상생카드 할인 재개 등  
산업·민생 분야 개선 노력  
AI 2단계 고도화 추진 계획



정책소풍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추진위 출범 등 전남과의 상생 성과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민선 8기 첫 결제로 ‘민생경제 대책본부’를 가동해 상생 카드 할

인을 재개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용자 지원도 확대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고물가·고환율로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경제, ‘나의 삶’에 집중해 정면 돌파하겠다”며 산업, 문화, 복지 분야 등의 비전도 제시했다.

이어 인공지능(AI) 2단계 고도화 사업 추진, AI 영재고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 체계 완성 등도 약속했다.

강 시장은 이 밖에도 사업비 증가로 개통 시기가 불투명해진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대중교통 개편 계획에 대해 올 연말 발표하겠다고 했고, 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용역비가 삭감된 트램 설치는 내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마중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또 신세계에서 복합소방물인 ‘스타필드’ 부지로 거론한 여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자와 소송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사업 공모를 진행해 신세계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들이 개발 경쟁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국립의과대 전남 유치 최선”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100일

2년 연속 국비 8조원 확보  
43개 기업, 5조원 투자 협약  
첨단 전략사업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정책 등 ‘속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전남의 글로벌 경쟁력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남이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전력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와 에너지산업을 전남이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선8기 취임 100일 기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취임 이후 주요 성과와 임기 내 정책 방향, 역점 추진 시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100일 동안의 성과로 새 정부의 건축 재정 기초

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전남도는 100일 간 43개 기업과 5조 448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지사는 향후 8대 역점 추진 시책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주산업·탄성소재산업·글로벌해양관광산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조성 ▲첨단 신산업 중심 3만5000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국내 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유치 ▲농·축·수산업의 미래생명산업화 ▲국립의과대 설립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등 전남 행복시책 추진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동맹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컬처·관광 선도를 위해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면서 도민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호남권 구축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컬처·관광 선도를 위해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면서 도민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호남권 구축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컬처·관광 선도를 위해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면서 도민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호남권 구축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컬처·관광 선도를 위해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면서 도민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호남권 구축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컬처·관광 선도를 위해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면서 도민 30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호남권 구축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학령인구 감소·기초학력 부진 대안 마련을”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임미란·박필순 의원 지적

광주시의회가 광주지역 학령인구 감소와 초등학생들의 부진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민주·남구2) 의원은 6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급감하고 있는 학령인구 상황을 지적한 뒤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광주 지역 유·초·중·고교 학령인구는 지난 2017년 21만9731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9만 206명으로, 5년 새 2만9525명(13.4%)이나 줄었다.

임 의원은 “3년2개월 동안 광주 지역 출생아수를 모두 합한 수에 해당하는 학생이 불과 5년 만에 사라졌다”며 “올해 고등학교 평준학생수를 감안하면 5년 동안 48개 고등학교가 사라진 것과 같은 상황으로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지역 특성과 새로운 교육환경, 도시환경 정비,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통해 연도별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점차 줄이고 적정 교원 수 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광주지역 초등학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학력 신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필순(민주·광산3)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598명이던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올해 904명으로 66.2%가 늘었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정보 수집이 소홀해 기초학력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포용 교육을 위한 적극 행정과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초학력이란 읽기, 쓰기, 셈하기와 관련된 교과와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기초학습 대상자는 2020년에는 708명으로 2019년 897명에 비해 줄었으나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부진 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기초 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를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 휴먼코 시스템 진단을 통한 보충 학습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 백지화 수순

시, 계획 철회 요청...국토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심의 유보

광주 산정지구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광주시의 계획 철회 요청에 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유보 등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광주 산정 공공 주택 지구 지정안 심의를 유보했다. 광주시의 개발 계획 철회 요청을 고려한 조치로,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산정지구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신규 공급 대상지에 포함됐다.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 3000㎡에 2029년까지 1만 3000호,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 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 공급도 사업 계획에 반영됐다.

# 세계 기후 전문가들 광주 온다

10~13일 DJ 센터서 ‘기후위기와 인권’ 세계인권도시포럼

세계 도시들의 인권 문제 논의장인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3년만에 대면 회의를 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12회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이 광주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공동 주최로 오는 10~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기후 위기가 인류 최대 위협이자 생존 문제는 인식으로 지방 정부의 책무와 대응을 논의한다.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공동 주최 기관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페기 히스

국장, 유네스코 본부 가브리엘라 라모스 사무총장 보가 기초 발제를 맡았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제2의 그레타 툰베리(스웨덴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12살 콜롬비아 환경·아동 인권운동가 ‘프란시스코 베라’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러시 하슬러 칠레 산티아고시장, 이나경 활동가, 모르텐 샬레 스페인 라울발렌베리 인권연구소장 등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토론한다.

에과도르 키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남아공 모갈

하지만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사업 계획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 보급률, 수급 상황, 지역 주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광주에서는 총 주택 예상 수요는 5만2000~6만4000호, 공공임대 2만1000~5만1000호로 예상했다. 반면 공급량은 12만 9000~18만7000호에 달해 공급 과잉이 전망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레 등에서도 시장 또는 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낸다.

전체회의에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도시 대표, 유엔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와 지방정부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주제회의에서는 시민단체 등이 기후위기와 생활다양성, 어린이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동안 해외 관계자들이 광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권투어, 인권정책투어, 유네스코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광주 인권마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자전거 동력으로 주스 만들기’,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와 광주 시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도 준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

# 가상의 대한민국을 만든다

LX공사는 국민 삶을 바꿀 디지털트윈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